

# 가난의 왕국

정기해 / 귀순자

북한 경제의 명맥인 산업이 50%선 이하로 떨어진 지도 근 20년이 되어 온다.

1980년 중반기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30%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북한 전반에 전개되어 있던 산업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업은 거의 숨을 죽였다.

그의 주되는 원인은 구소련과 중국의 원조와 차관에 지탱하여 근근히 살아오던 산업이 원조가 끊어지면서부터 극심한 외화난에 직면하게 된 것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이 마비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자칭하던 경제와 산업이 사실에 있어서는 공업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 외화난에 의해 원료 조달 능력이 급격히 빈약해진 데 기인된다.

한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빈약한 북한의 무역 실패가 증명하듯이 년산 12분의 순금과 유색금속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순도 낮은 내화물과 약간의 수산물,

그리고 전국민을 동원하여 긁어 모아 들이는 산나물과 약간의 모피류에 의해 약 8억~10억 달러 정도가 연간 외화 획득의 전부이고 보면, 국민 1인당 약 40 달러가 고작인 것이다.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계공업은 부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외화난의 여파에 의해 10%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중국에서부터 수입해 오던 역청탄과 합금 원소들의 고갈로 북한 굴지의 야금기지인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강선제강소, 성진제강소 등이 가동률 10~15%선 이하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에 의존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당연히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

또한 공업의 양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전력생산이 수요의 10%선에 불과하니 기간공업과 군수공업마저 완전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 전역에 전개되어 있는 중앙공업과 지방

공업들을 만가동하기 위해서는 4백만 kW/시의 전력이 필요하나 1993년 현재 총발전량은 30만 kW/시에 불과했다.

또한 외화난에 의한 원유 수입은 수요의 20%선 이하에서 맴돌고 북한 공업의 중요한 열원천인 석탄의 고갈 또한 전력 생산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생산수단의 현대화를 세계적 수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일제 시기의 능력에 비해 약간의 합리화를 실현시켰거나 1940년대의 외국 생산수단을 끌어들이어 놓고도 그것이 마치 최신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은 완전히 상실했고 그것은 국가경제와 국민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 산업을 놓고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자랑은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일용품 공업과 화학공업,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원료 자체가 없이 가동시킬 수 있는 산업은 전혀 볼 수가 없다.

산업을 파국적인 마비는 국민들의 실질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이 약 330 달러를 밑돌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불합리성과 생산 의욕의 감퇴로 인하여 산업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놓

여 있다. 또한, 산업의 파산은 국민들의 물질생활에 막대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상품 부족을 노리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저질의 필수품이 행상들의 손을 거쳐 밀려 들어 오고 국민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할 수 없는 저임금으로 10배에서 20배로 폭등한 저질의 소비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여기 서부터 지난 시기에는 농민들에 의해 생산되었던 약간의 채소류와 조물제품, 그리고 소가죽이 배매되어 오던 농민시장이 1970년대 초반기 부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농산품 시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사회주의제도의 취약성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배매행위는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자본주의의 씨앗을 심어줌으로써 오늘날에는 상행위를 떠나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이 인간 사회의 필연으로 의식하게 되었고, 사회주의제도와 정부 그리고 북한 집권자에 대한 의존도가 완전히 희박해졌다.

제도적인 취약성과 불합리성은 또한 농민들의 생산 활동에서 생산 의욕을 지락시켰다. 사회주의 협동적 소유 관계와 분배 원칙은 농경지에 대한 애착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으며, 생산 의욕을 완전히 감퇴시킨 탓으로 농경지의 산성화를 촉진시켰고 정보당 수확고를 현저히

저락시켰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비해 볼 때 1990년대 정보당 평균 농업 생산고는 정보당 6톤에서 3톤 수준으로 감퇴되어 식량 수출국으로부터 식량수입국으로 전화시켰다.

또한 국민들의 식량난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하부 지도층의 무원칙한 충성심과 복종으로 하여 농산물 생산고에 대한 허위 보고에서 생겨난 공백의 누적에 대한 책임을 식량 소비자들에게 넘겨 씌움으로서 한층 기아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농업 생산의 감퇴는 또한 화학공업 부분의 생산 부진에도 기인한다. 화학 비료에 의존해 오던 농촌 경리는 전력 부족과 외화난에 의해 비료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민에게 자급 비료 생산을 강요하였으나 실속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농약 부족으로 병충해에 의한 피해조차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폐농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지도자는 전국의 생산이 중단된 산업 부문 근로자들을 농촌에 동원시켰으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농촌에 동원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생산 의욕을 저락시켰을 뿐이었다.

농촌에 동원된 산업 부문 근로자들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중세기적인 영농 작업에 대한 저임

금 보수이고 보면 그들의 불성실성은 당연한 것이다.

북한 전국적 범위에서 볼 때 지난시기 농촌에는 노총각들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도시 처녀들이 농촌으로 출가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생활 수준의 차이, 한마디로 말하면 배급 생활을 하는 산업 부문 근로자 처지보다 농민들의 처지가 조금이나마 부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농민이라고 하여 농업 노동에 대한 보수가 넉넉한 것은 아니나 농가 호당 30평 이상의 부업 텃밭을 이용하여 부수입을 얻을 수 있고 농산물을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분배는 여유가 없으나 배급 생활보다 넉넉한 편이다.

현재 북한의 경지 면적은 논 80만 정보와 밭 70만 정보, 계 150만 정보이다. 선진국들의 수준에서 볼 때 이만한 면적이면 2천만명이 소비할 양식은 넉넉히 생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북한 독재자에 의해 고안된 주체농법의 불합리성과 제도상 불공평성과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부인하고 적용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은 식량 자급자족의 가능성마저 잃게 하였다.

농민들의 실질 수입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로 경지 면적의 수전이 차지하는 비

율이 50% 정도인 지역에서는 나머지 50%의 밭에서 공예작물 재배에서 현금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농민 한사람당 약 1,200원(550달러)~1,500원(688달러) 정도이며 논 면적이 다수인 협동농장인 경우 800원(368달러)~1,200원(550달러), 그리고 고산지대 협동농장인 경우 600원(275달러) 정도의 현금 분배를 받는다. 그러나 현금 분배액에서 1년 동안 소비해야 할 양식을 구입하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보잘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자기집 주변의 텃밭 이용을 잘하여 부수입을 얻고 소가축(개, 돼지, 닭, 염소, 양)을 사육함으로써 부수입을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산업 부문 근로자들의 수익보다 농민들의 수익이 월등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생계유지 방법이 폭 넓게 적용되게 된 것이다.

자가 부업의 방법으로 수익을 유지하는 농민들의 생활 방식이 농촌에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산업 부문 근로자들 속에서는 상석 방법으로 수익을 보장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것을 볼 때 역시 자본주의적인 소규모 상행위가 농민시장을 거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품 부족 현상 때문에 생겨난 합병증이라

고 봐지지만 그를 역시 허기와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법의 눈을 피해가며 중국산 소비품을 되거리 암거래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

불가피한 인명술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상행위로 하여 오늘날에는 국부적이기는 하나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앞서서 굶어 죽기보다 법을 피해가며 얻는 수익이 훨씬 현실적이고 그것을 떠나서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북한 전역이 행상 분위기로 휩쓸려 있다. 하지만 고찰 것 없는 장사 밑천마저 없는 절대다수 세대들은 오늘날 전세계에 알려진 바 대로 식량난에 허덕이고 복숨이 끊어지지 않아 할 수없이 살아가는 것이 북한 근로자들의 현실이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제도는 만민이 공평하다고 역설했으나, 기울어져 가는 사회주의제도의 불합리성과 최고위급 지도자들의 무능함에 의해 오늘날 당·행정·정보기관(국가보위부), 사회안전기관 일꾼들은 뇌물과 부정 비리로 날이 갈수록 부유해 가고 있으며, 하층 근로 대중들은 빈곤과 정치적 억압 밑에 그 어떤 권리도 보장됨이 없어 우마와 같이 북북히 살아가고 있다. **○**